

전북자치도, 대학연계 지역혁신 대전환 시동

라이즈 공모 결과 심의·의결... 4개 프로젝트 833억원 지원
이달 말 선정 대학과 협약 후 내달부터 RISE사업 본격 추진

2023년 라이즈(RISE) 시범지역 선정부터 2년여의 긴 준비를 마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혁신을 위한 본격 실행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RISE 사업 공모 선정결과와 예산 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지(역)·산(업)·학(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라이즈(RISE)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섰다.

지난 3월 7일 공고 후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지역 14개 대학에서 218개 과제, 총 1,475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라이즈센터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고, 127개 과제 758억원을 선정했다. 공모 외 지정과제인 JST공유대학 75억원을 포함하면 총 833억원 규모다.

이번 평가에는 총 4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그중 62.5%인 30명은 중앙 RISE센터에서 제공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선정 기준은 △계획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지속가능성 △재원의 적정성 △지역산업 현황과의 부합성 △시군 수요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의 연계 △특정대학 또는 산업에의 편중 방지 등도 고려사항으로 포함됐다.

프로젝트별로 생명·전환산업 육성(JB-SPARK) 프로젝트는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RISE 연구 클러스터를 통해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강화기 위한 49개 과제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역주력산업성장(JB-ROOT) 프로젝트에는 산업현장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30개 과제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프로젝트에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확대하여 비전공자·경력단절자·중장년층·퇴직자 등 전 생애 주기별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16개 과제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에는 11개 대학이 선정되어 시군현안 수요와 초·중등교육 대학연계, 늘봄학교 등 32개 과제를 수행한다.

라이즈(RISE)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전북 라이즈(RISE)센터는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개별 과제별 선정 여부를 대학에 안내했다. 4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검토 절차를 거쳐, 4월중 라이즈(RISE)센터와 선정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라이즈(RISE)는 단기적인 경쟁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긴 여정이다"며, "대학은 지역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이제는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자치단체와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오늘 선정 결과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와 원광대는 도비 지원액 1,250억원 중 총 250억원(전북대 100억, 원광대 150억)을 지역 '비글로벌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대학상생' 사업에 환원할 계획으로 올해 투자액은 70억원이다. 라이즈 선정절차가 종료되는 4월말경 '비글로벌대학 경쟁력 강화', '지자체 수요과제 연계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 선정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

농진청,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 4종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아이피시시(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186.7~17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과장은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문가 코칭 진행... 희망기업 18일까지 모집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환경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가 코칭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전국의 협력사나 대중소 상생형 기업을 위한 지원은 있었지만, 특정 지자체를 위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3월부터 '2024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도입기업 대상 순차적으로 환경·안전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전북형 도입기업이 선정되는 6월부터는 전북형 멘토의 현장혁신 활동

기간과 병행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환경안전 전문가들은 도내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방호조치, 교육), 환경관리(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방재 관리(소방시설 및 재해 예방) 등을 컨설팅하고, 전북형 혁신멘토들은 기존의 일하기 편한 작업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삼성 전문가가 발굴한 환경·안전 과제를 개선해 안전하고도 일하기 편한 제조환경 조성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한편, 올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미래산업 중심 국비 전면전... 도, 2026년 예산전쟁 개시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방문... 도 핵심사업 국가예산 반영 건의 추진
9조6000억 이상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시군 협력 등가용 수단 총동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년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한 전북자치도는, 올해도 9조6,00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전면전에 돌입한다.

올해는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더불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도보다 예산 여건이 더욱 어려

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른다"는 판단 아래,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부터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한 지휘부 중심의 전략적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시작으로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직접 방문, 미래 신산업과 창업 생태계 관련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

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 창업정책관과의 면담에서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복합 창업공간을 구축하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과 △해의 스타트업 본사 이전 시 국내 정착 및 성장 지원하는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에게는 △수소 연소 엔진형 대형트럭 기반 특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

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수용가 전기설비 원격 점검 및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전북의 성장엔진인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전북의 미래성장엔진인 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 예산 사업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공공융합연구정책관에게는 △형상 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 고도화(R&D) 등 바이오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R&D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유해화학물질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기간 중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 등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의 안전관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화

성·폭발성 물질 취급사업장 등 40개소를 올해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 소속 관련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취급시설(저장탱크·배관·플랜지 등) 관리 기준 준수 및 피해저감시설(방류벽 등) 적정 유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유해화학물질 표시 여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확인한다.

/오상근 기자

무주군 공고 2025-447호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청취 공고

「무주 적상지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동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5년 ~ 2028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시점	종점		
무주 적상지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적상면 포내리 716-1번지 (하중마을)	적상면 포내리 316-1번지 (호수펜션)	○ 연장 : 1.50km ○ 폭원 : 10.25m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 열람장소, 열람기간

구	본	열람장소	열람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청도과	2025. 4. 16. ~ 4. 30.(14일간)
무주군		건설과,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4. 16. ~ 30.(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청과(☎063-280-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무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